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중에서-

링컨이 16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때 기쁨과 감격에 환호하는 지지자들이 링컨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링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링컨의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의 참모들은 축하객들에게 오늘만큼은 포도주나 위스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술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술이 링컨의 집으로 배달되자, 링컨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하고는 모두 되돌려 보낸 후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이며,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방금 길어 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시다!" 링컨은 냉수 잔을 들고 마시며 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링컨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비록 술과 고기로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진실한 신앙과 겸소함, 끝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 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4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1월 14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바보 예수



낙오자 되기 싫어
저마다 한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
친구를 끌어내리고 형제를 밟는 세상에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부모도 친구도 때로는 자식에게도 손을 퍼지 않는 세상에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행색 보아 말 걸고 배경 살펴 사람 사귀는 세상에
당신은 그저 사람이니까 귀하다고 오셨습니다

빈부귀천 가르치 않고 사람이면 품에 안고
피흘려 마시우고 살 찢어 먹이셨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신 당신은
바보 아름다운 바보입니다

우리選手 世界로 보내 世界를 征服하는 英雄가!
허버트 康渡美 告別 最終 大決戰

중 國 最 強 健 身 選 手
허버트 康

한 國 最 強 健 身 選 手
화이팅 金

6月3日 下午7時 **장중체육관**
主 辦: 亞 細 亞 體 育 會 協 會 / A.S.C. 後 援: 東 洋 建 設 局 後 援: (株) 韓 國 體 育 會 會 社

◀그뎐 그랬지▶ “허버트 강” 을 아시나요?

hungry정신의 대표적 운동이었던 복싱은 고된 배 참아가며 샌드백을 두드리던 젊은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복싱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70년대에 ‘허버트 강’은 이름만으로도 강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세계챔피언을 꿈꾸었을 테지만 결국은 김기수 선수가 한국인 최초 세계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켜 보아야 했습니다. 이안사노, 이금택, 김현치, 유제두, 황충제, 박찬희, 염동균, 홍수환, 김상현, 김성준, 김득구, 김태식, 박종팔, 이제는 이런 복서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때의 ‘MBC권투’ 시그널 음악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말아!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1)▶

너를 태우고 가다가 네가 도중에 내려야 할 때 너에게 가장 편한 곳에서 차를 세운다면 싹이 노란 남자다. 절대 그것을 너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며 고마워 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남자는 너에게만 세심하며 타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무심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오히려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녀석이 진짜 물건임을 명심하여라

주 일 예배

(* 표에 원어사하기 어려운 문은 얇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찬송 Hymn 16 (시 63) 사도신경

응시의 선언 Proclaim *찬송 Hymn 44장 다 같이

교회 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85장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89장

성경독서 Scripture Reading *찬송 Hymn 89장

성가대 찬양 Choir *찬송 Hymn 89장

교목 바울의 기적(2) "예수를 믿으라" *찬송 Hymn 89장

성경묵시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인도자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인도자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다 같이 *찬송 Hymn 89장

◆11월의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28	지진영	김영진	2구역
21	정희지	김영숙	중앙부
14	정민수	권용일	1구역
7	장원중	김덕원	11구역
양자	주영기도	원근위원	주말봉사
	주영	예배와 모임	
7	특별새벽기도	구역예배(12)	
14	특별새벽기도	민음의어머니기도회(16)	
21	식사전교수영	구역종교간교수사	
28	이삭꽃기주영	선교회총회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를 찾습니다)

'이 믿음은 더욱 굳세라'
(1절: 열사십자가 2절: 다같이)

바울의 기적(2) "예수를 믿으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표에 원어사하기 어려운 문은 얇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참음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참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복돋는다

*3주간 예배, 전교장석 이후에

응독 자리가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자녀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11월 8일(월)-20일(토) 새벽 6:00. <예배당 문 Open> 5:20am

"너희들이 있기에 우리도 기도 할 맛 나는구나" 며 새벽바람을 맞아 보십시오.

올해주년이며 마지막 주간입니다.

*미리 오셔서 개인기도 후 예배드리면 바쁜 새벽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주일(21일)은 2004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교회는 절기원칙이 없습니다. 한해동안 자식농사, 시험, 직장, 건강 그리고

민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은 예배로 드립니다.

3. 다음주일은 구역별 BBQ 식사전교를 찾습니다.

*한 해동안 믿음안에서 지나왔던 구역식구들과 시냇가리며 갖는 식사, 밭과 고기는

교회에서 제공됩니다. 반찬과 음료는 구역에서 준비한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역별로 BBQ 불판을 한 개 이상 꼭 준비바랍니다.

4. 2005년 목사자원서

*여러곳에 여러모양으로 교우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5. 바나와 특 신학교 졸업생을 위한 "축구공"

*각 선교회에서는 바나와투에 보낸 선교회원금을 1년선교회 총무(최복수 전사)에게

간네 주시기를 바랍시다

6. 세례, 유아세례, 입교(유아세례받은 교우) 대상 교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우,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우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중 대상자에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좌편 시인들▶

꽃집에는 민들레꽃이 없습니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꽃집에는

민들레꽃이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 없는 꽃이

아닌가 봅니다

마치

있었습니다.

꽃에 피는 꽃들은 그들대로, 아

사랑과 다정함

우정과 소중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합니다

꽃기까지한 자기들만의 색깔과

장식, 하물며 사람이야 할로 무

참하리요.

여리를 할 문 헌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을 향해

마음내

향긋하게 꽃을 피우고

아름으로 자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합니다

우정과 소중한 사랑을

사랑과 다정함

우리가

꽃에 피는 꽃들은 그들대로, 아

있었습니다.

만한 꽃잎인데도 작은 무늬도

가 감춥니다. 아기를 새끼발볼

져 입에 물었을 때 탄화한 냄새

피어있는 작은 꽃을 무심코 따

조각하며 씹는 자리에 산만해

이름은 모를새 지내왔습니다.

이유로 눈에 쉽게 띄는 꽃들도

이름이 없 안되더군요. 예쁜다는

꽃아보나 내가 알고있는 꽃들의